

# 식량·생필품 기반부터... 경제 재건 인프라 확충해야

- 북한 지역에 필수적인 건설 수요를 추정해본다 -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박** 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한 이후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SOC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의 공동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북한 당국에 3대 제안을 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통일과 남북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건설업계도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재건 여건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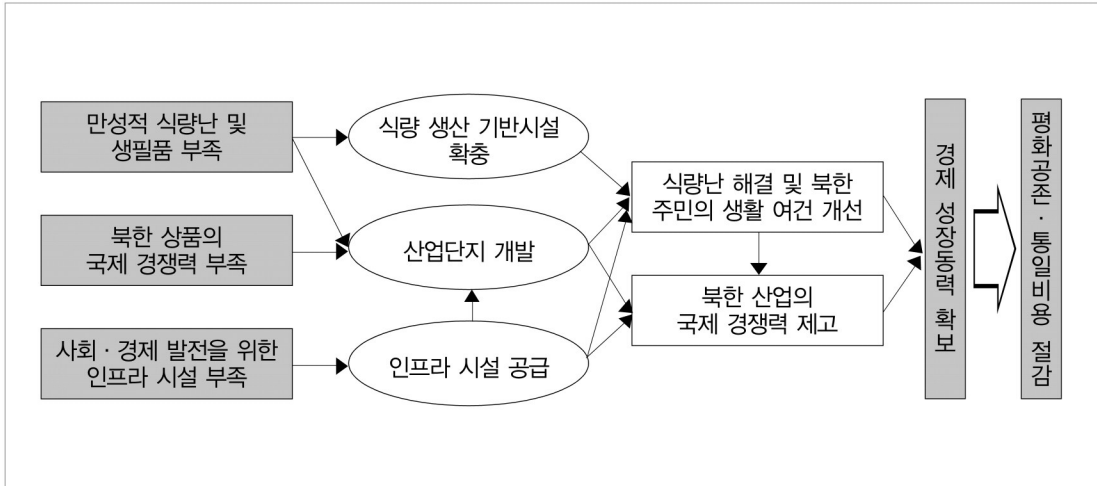
북한 경제는 현재의 낙후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 재

건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어야 남북한 평화 공존이 가능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향후 통일 비용을 경감시키고 통일 편익을 조기에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거의 없어 북한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소비재 등 기초 생필품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나 해외 수입에 따른 대외 결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도로, 철도, 통신, 발전, 산업설비 등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 또는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로는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성

# 특집 북한 건설시장, '통일 대박'의 마중물

〈그림 1〉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최우선 건설 수요 및 기대효과



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적절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화에 필요한 최우선적인 건설 투자는 우선 농림수산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림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고, 북한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통신, 도로·철도·항만 등 각종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

남북 협력 시기의 최우선 건설사업은 북한 주민들이 궁핍에서 벗어나는 분야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통일 이후에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식량·생필품 생산 기반 등 시급해

북한 내 최우선 건설 수요로 예상되는 사업을 통일 이전인 단기(남북 협력 단계)와 통일 이후인 중장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식량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의 복구와 개간, 관개 수로의 개선 및 확충, 간척지의 복구와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다목적댐 건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2, 3단계 확대 사업이 재개되어야 하며 나선, 신의주, 황금평과 같은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분업 체계와 세계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평양·남포, 청진·김책 등 기존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시설의 대폭적인

북한 건설 수요의 유형

현황	개선 방향	건설 수요의 유형	
		통일 이전(단기)	통일 이후(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기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 생산 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경지 복구/개간</li> <li>관개 수로 개선/확충</li> <li>양수장 복구/확충</li> <li>간척지 복구/제방 보강</li> <li>축산물 시설의 정비 및 현대화</li> <li>비료공장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계속</li> <li>대규모 간척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필품 부족</li> <li>북한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공업 발전으로 생필품난 해결</li> <li>북한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화 획득</li> <li>식량, 생산시설 등 수입 확대로 경제 재건 동력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양급 경제특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업지구 2, 3단계 확대</li> <li>- 나진·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li> <li>- 금강산지구 확대 개발</li> <li>- 해주경제특구</li> </ul> </li> <li>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계속</li> <li>핵심 산업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남포, 개성·해주, 신의주, 안주·순천, 함흥·원산, 청진·김책, 나진·선봉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li> <li>물자, 여객 이동 제한</li> <li>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북한 경제의 지속 발전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제의 지속 발전 지원</li> <li>동북아 지역의 물류 거점 육성</li> <li>남북한 간 윈-윈(win-win) 전략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 주요 간선 도로망 정비 (선형 개선, 포장재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li> </ul> </li> <li>철도 : 철도망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li> </ul> </li> <li>항만 : 개보수,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진, 청진항 등 개보수 및 시설 확충</li> </ul> </li> <li>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안국제공항 개보수</li> <li>- 삼지연공항 개보수</li> <li>- 나진·선봉공항 건설</li> </ul> </li> <li>대륙철도(TCR, TSR)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계속</li> <li>도로 : 경의축, 동해축, 동서축 포장 개량 및 신설</li> <li>철도 : 경의선축, 동해선축 등 복선화 및 남북한 철도 시스템 일원화</li> <li>항만 : 8대 무역항(나진항, 청진항, 남포항, 신의주항, 해주항, 원산항, 송림항, 흥남항, 선봉항)의 현대화</li> <li>공항 : 5개 공항 개보수 및 현대화(순안, 어랑, 삼지연, 선덕, 원산)</li> <li>아시아안 하이웨이 연결(AH1, AH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 및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 발전 동력 확보 미흡</li> <li>주민들의 에너지 부족으로 별채 남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시설 구축 및 에너지 공급</li> <li>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한 200만kw 전력 북한에 직접 송전</li> <li>경제특구(개성, 신의주, 라선, 금강산, 해주, 경제개발구 등) 전력 공급</li> <li>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계속</li> <li>발전소, 송전, 배전, 배전설비) 개보수</li> <li>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li> <li>원전 건설</li> <li>신재생 에너지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의 노후화, 성능 미흡 심화</li> <li>주택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경제 재건 참여 의지 확대</li> <li>경기 활성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특구 내 주택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계속</li> <li>북한 내 연간 10만호 주택 건설,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주거지 정비</li> </ul>

## 특집 북한 건설시장, '통일 대박'의 마중물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노선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택지 개발·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공장, 전력·상하수도·주택 건설 등 산업단지 인프라에 관한 건설사업의 발생이 예상된다.

셋째, 북한 내 교통 인프라 시설은 단기적으로 북반서해 축의 거점인 개성, 평양, 신의주, 남포 등을 경유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10·4 공동 선언'(2007년)의 이행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및 관광 특구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나진 및 청진항의 개보수 및 확충, 선봉공항 건설과 백두산 삼지연공항 개보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종단철도(TKR : 경의선, 동해선)와 대륙철도(TCR, TSR, TMR)의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도로는 경의 축, 동해 축, 동서 축의 포장 개량 및 신설, 철도는 경의선 축,

동해선 축 등 복선화 및 남북한 철도 시스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 항만은 북한의 8대 무역항에 대한 현대화 작업, 그리고 공항은 주요 공항에 대한 개보수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결과 및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남한이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사업을 제안(2005. 7)한 바 있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 사업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전력 설비의 개보수,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이 예상된다.

다섯째,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특구 지역 내의 근로자용 기숙사 및 주택 건설사업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에서 약 100만호 수준의 주택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 수요가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드레스덴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핵 실험을 준비하는 등 여전히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는 지속되고 있어 통일은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형성과 더 나아가 통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닥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착실히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CERIK